

<박사학위논문 소개>

지역 간 기회구조 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Regional Disparities in Opportunity Structures and the Reproduction of Income Inequality

저 자: 최 호 권 (Choi, Ho-Kwon)**

지도교수: 박 인 권 (Park, In-Kwon)***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분포는 단순한 지리적 현상을 넘어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을 매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의 계층은 대체로 양질의 기회가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하여 우위를 강화하고 후세에 이를 대물림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열악한 서비스와 기회를 가진 지역에 머물러 계층 상승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회의 지리' 이론을 기반으로 성장기와 대학 재학 시기라는 청년의 대표적 생애주기별로 지역 기회구조 격차와 소득불평등 재생산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에 적실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회의 지리 이론은 특정 시점의 공간적 격차와 이후 삶의 결과 간 관계를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누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을 환경의 일방적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닌 특성과 역량에 기반하여 기회구조를 활용하는 능동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특정 시점의 격차가 삶에 총체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의 격차가 개인의 기회구조 인식, 기대 및 인지, 학업역량의 변화와 대학소재지, 직장소재지의 이동 등 생애주기의 변화를 야기하여 최종적으로 임금 소득에 이르는 삶의 궤적을 주목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기회를 향한 지역이동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특정 시점에 지역을

이동한 집단이 이동하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성과가 제고되고, 특정 시점에 기회를 향한 이동과 지역의 기회구조 활용이 부모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역이 불평등의 재생산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시점에 부모 배경과 지역의 영향력이 크다면 그 시점은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요 시기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공간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중첩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개인 삶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구조'를 '경제적 기회, 사회적 관계, 기관 및 서비스'로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회구조 분포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기회구조의 격차가 발견되었다. 서울은 가용한 기회구조의 절대적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그리고 접근성의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회 지역으로서의 서울은 이미 사람들 인식 속에서도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은 비서울 지역 출생 대졸 임금 소득 근로자 1,01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자료와 설문 대상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성향점수매칭과 경로모형 방법을 활용한 양적 분석과 질적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와 대학 재학 시기 모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자기강화적 기회구조 생태계가 확인되었다. 서울의 경제적 기회, 사회적 관계, 기관 및 서비스 기회구조가 순환하여 상호 강화함으로써 기회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성장기에는 고학력·고소득 부모가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 내 사교육 기관의 밀집과 학업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대학

*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최호권(2025), '지역 간 기회구조 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재생산'을 요약한 것임.

** 서울대학교 박사, baety1234@snu.ac.kr

*** 본 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parkik@snu.ac.kr

시기에는 대학과 지역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의 선별적 집중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였다.

둘째, 서울로의 지역이동에 의한 기회구조의 개선은 기회의 중심부에서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누적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서울 이동은 서울 내 대학 진학으로, 대학 시기 서울 이동은 서울 내 직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효과로 궁극적인 임금 소득을 제고하였다. 수능 성적을 활용하여 학업 역량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음에도 대학 시기 서울 이동이 임금 소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지역의 영향력이 실존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특정 시점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력을 실증함으로써 기회의 지리 이론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 세대가 지역을 매개로 소득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성장기는 기회 지역으로의 진입이 부모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모 세대는 기회 지역으로의 진입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로 대물림하고자 한다. 대학교 시기에는 기회 지역으로의 진입에 부모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유사한 환경을 갖추는 것 외에도 기회 접근성의 실질적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현존하는 서울 소재 대학 집중으로 인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회구조 개선을 통한 삶의 성과 제고를 꾀할 때, 기회구조의 상대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천적 기여 외에도 기회의 지리 이론을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확장하였다는 이론적 기여를 갖는다.

주제어 : 지역 격차, 기회구조, 기회의 지리,
소득불평등, 지역이동, 임금 격차

Keyword : Regional Disparity, Opportunity
Structure, Geography of
Opportunity Income Inequality,
Regional Movement, Wage Gap